

나가미네하치만구 신사(야하타구샤 신사)

오하라노 이시쓰쿠리 지구에 있는, 조용한 나가미네하치만구 신사는 나라의 수호신으로서 숭상받고 있는 하치만 신(제 15 대 천황인 오진 천황)과 황실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제신으로 모시고 있으며, 야하타구샤 신사라고도 합니다. 창건년도는 알 수 없지만 10 세기의 풍속 및 격식에 관한 내용과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2861 곳의 신사가 기재된 책인 『엔기시키』에 적혀 있는 이시쓰쿠리 신사의 장소에 해당할 거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시쓰쿠리 신사와 제신의 관계

이시쓰쿠리 신사는 귀족의 석관을 조각한 이시쓰쿠리 가문의 조상신인 이시쓰쿠리노오카미를 모시는 신사로 에도 시대(1603~1867 년)까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시쓰쿠리노오카미는 나가미네하치만구 신사에서 동쪽으로 걸어서 금방인 오토시 신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시쓰쿠리 가문은 일본의 제 11 대 천황인 스이닌 천황(기원전 69~서기 70 년)의 황후인 히바스히메노미코토의 관을 만들었는데 그 공적을 인정받아 높은 관위인 ‘오무라지’를 하사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경내

현재 나가미네하치만구 신사의 경내는 하치만 신사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하치만 신의 신성한 사자인 한 쌍의 비둘기 목조 조각상과 비둘기 석상이 있습니다. 또한 본전은 고훈 시대(300~538 년) 후기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고분 위에 지어져 있는데, 기초 오른쪽에 있는 구멍에서 석실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경내에는 희귀한 까마귀쪽나무 세 그루와 높이 30m, 수령 900 년이라는 녹나무 신목(神木)이 있습니다.